

11-05 (통권 제 475호)

2011. 2. 9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한국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의 허와 실
 - 최근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와 문제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임상수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국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의 허와 실	
- 최근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와 문제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	3
3. 부품소재 교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5
4. 시사점	11
■ HRI 경제 지표	16

■ 개 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대외적으로 부가가치의 유출 축소로 무역흑자가 커지고, 대내적으로는 고용창출력 강화, 양극화 완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통상 학계에서 언급되는 '저기술 균형(low-tech equilibrium)' 또는 '중진국 함정(underdevelopment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행히 국내 부품소재 생산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8%에서 2008년에 43%로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이 현시(顯示)되는 교역 데이터를 통해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외형적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

첫째, 부품소재 수출이 완성재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부품소재수출액은 1994년 291억 달러에서 2000년 799억 달러, 2010년 2,293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액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수출이 부품소재 이외 부문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부품소재수출액 / 총수출액 비중도 1994년 30%에서 2010년 49%로 크게 늘어났다.

둘째,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는 시장인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12.2%에서 2010년 16.2%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 독일, 대만산 부품소재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평균적인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소재 품목의 무역수지는 1997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폭이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2010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779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부품소재 교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국 부품소재 교역이 총량적인 개념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한국산 부품소재가 아직 선진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OECD부품소재수출/총부품소재수출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10년 28%

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 시장을 보면 미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5.3%에서 2010년 1~10월 3.7%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00년 8.5%에서 2010년 1~10월에 8.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둘째, 부품소재 수출이 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재 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소재/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2000년 35.4%에서 2010년 32.2%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10년 부품 부문의 무역수지 658억 달러인데 반하여 소재 부문의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재 부문의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 2010년 -15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셋째, 부품소재 수출의 IT 관련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한국의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수출 / 총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의 부품소재 수출 증가분 351억 달러 중에서 약 3분의 2인 232억 달러가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수출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이외에도 화학, 금속, 수송기계, 일반기계 부품소재 등이 상대적으로 고른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 특정 산업 경기 변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넷째,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품소재 산업 강국들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0년 24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독일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3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를 다시 말하면 '로테크' 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은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이테크' 시장에서는 부품소재 강국들의 기술 또는 경쟁력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 시사점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부품소재 기술 수준별로는 하이테크 부문 위주의 선별적 육성 전략을 통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범용기술(로테크) 시장을 탈피해야 한다. **둘째,** 부품소재 업종별로는 수출의 과도한 IT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IT 이외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방 수요 기업과 부품소재 생산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품소재에 대한 국내 수요도 진작시켜야 한다. **넷째,** 부품소재 경쟁력의 핵심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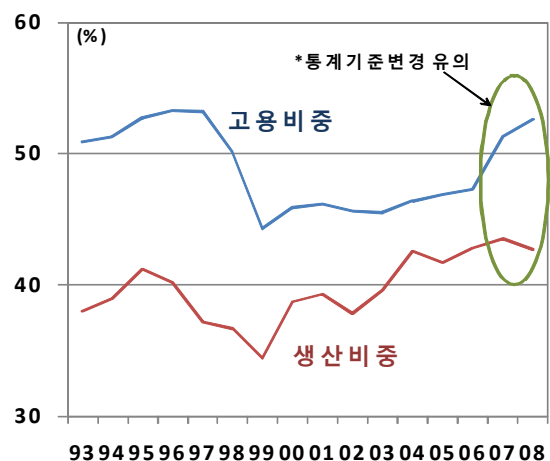
1. 개 요

○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대내적으로는 고용창출력 강화, 양극화 완화 등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부가가치 유출을 축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용창출력 강화 및 경제 양극화 완화: 부품소재 산업이 육성되면 경제 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음
 - 부품소재산업/제조업 생산비중은 1993년 38%에서 2000년 39%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생산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2008년에는 43%에 이름
 - 한편 부품소재산업 고용자수가 제조업 전체 고용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는 약 53%로 생산 비중을 상회함
 - 이는 부품소재 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 및 고용 추이 > < 생산 및 고용의 부품소재/제조업 비중 >

	'93	'00	'08
생산액(조원)	97	219	480
부가가치액(조원)	61	126	234
종업원수(만명)	147	122	129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주: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에서는 '93년~'06년은 종업원 5인 이상, '07년 이후는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의 조사 자료임을 밝히고 있음.

-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축소:**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추게 되어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무역 장벽 완화에 따르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출현으로 국제 교역 과정의 수직적 분업(vertical specialization)화가 빠르게 진전됨
 - 특히 수직적 분업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완성재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출의 외화가득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 이제는 생산이나 수출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짐

-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 확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으로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성장이론에 따르면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최종재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일정한 경제 발전 단계 이후에는 '고기술 균형(high-tech equilibrium)' 과 '저기술 균형(low-tech equilibrium)'의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함
 - 이중 '저기술 균형'은 개도국이 최종재 산업에 치중하고 중간재 산업 육성을 게을리 하여 경제 전반의 기술혁신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발생함¹⁾

- (연구 목적) 이에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교역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성과와 그 성과에 묻혀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1) Porter(1990), Rodríguez-Clare(1996), Rodrik(1996), 김윤지(2006), 김현정(2005) 등에 따르면 '저기술 균형'은 최종재 산업을 뒷받침할 중간재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중진국 단계로 해석) 이후에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함. 이를 다른 말로는 '저성장 함정(underdevelopment trap)'으로 표현하기도 함.

- 2000년대 들어 한국 부품소재 산업은 교역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²⁾
- 그러나 부문적인 세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확신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한국 부품소재 수출, 수입, 무역수지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

○ (부품소재 수출 비중 증가) 부품소재 수출이 완성재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부품소재수출액은 1994년 291억 달러에서 2000년 799억 달러, 2010년 2,293억 달러로 급성장중임
- 부품소재 수출이 부품소재 이외 부문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부품소재수출액/총수출액 비중은 1994년 30%에서 2000년 46%에 이어 2010년 49%로 증가함

○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특히, 부상하는 시장인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12.2%에서 2010년 16.2%로 상승

2) 일반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수출, 무역수지 등의 교역과정에서의 성과로 간접 측정될 수 있음.

최근 부품소재 교역의 외형적 성과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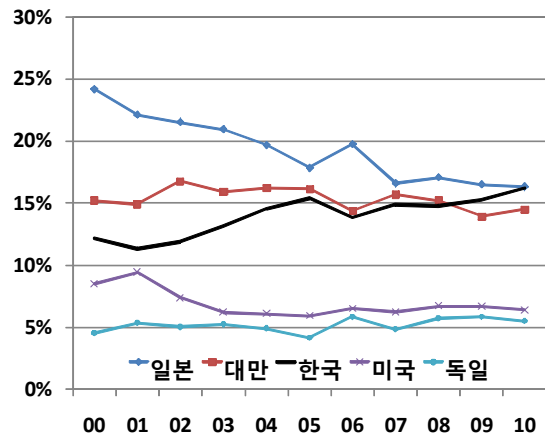
-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일본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 독일, 대만산 부품소재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중임

○ (무역수지 흑자 확대)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평균적인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품소재 품목의 무역수지는 1997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폭이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중임
 -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994년 49억 달러 적자에서 2010년 779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에는 무역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
- 특히,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50개 교역국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 러시아 연방 등 20개국(이)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 인도 등 122개국(이)은 흑자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

< 한국 부품소재수출/총수출 비중 > < 중국 부품소재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

	'94	'00	'10
부품소재수출 (억불)	291	799	2,293
총수출 (억불)	960	1,723	4,674
부품소재 /총수출	30%	46%	49%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및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우측 그림)의 2010년 수치는 1~11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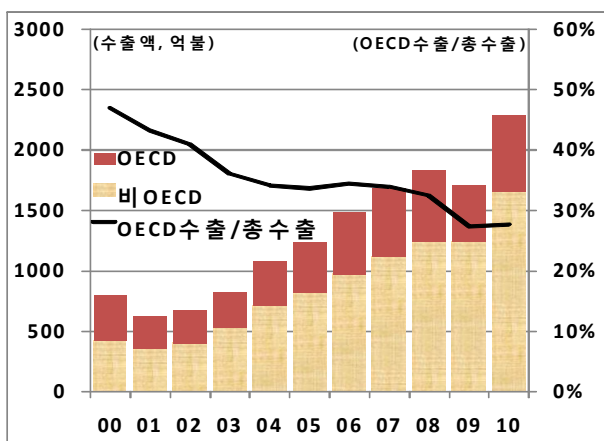
3) 지경부, '10년 부품소재 무역수지 779억불 흑자, 사상최대 기록 갱신' (11.1.11) 보도자료 참조.

3. 부품소재 교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대 선진국 시장 점유율 하락)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산 부품소재의 점유율은 하락하거나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음

-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세를 같이하며 부품소재도 개도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OECD부품소재수출/총부품소재수출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05년 34%, 2010년 28%로 빠르게 축소됨
-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 부품소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미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5.3%에서 2010년 1~10월 3.7%로 하락하고 있으며,
 - 일본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00년 8.5%에서 2010년 1~11월에 8.3%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EU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7년 3.0%에서 2010년 1~10월 4.0%로 상승함

<한국 OECD부품소재수출/총부품소재수출> <국별 부품소재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수입비중>



	'00	'05	'10
미국	5.3%	4.2%	3.7%
일본	8.5%	8.9%	8.3%
EU	-	3.0% ('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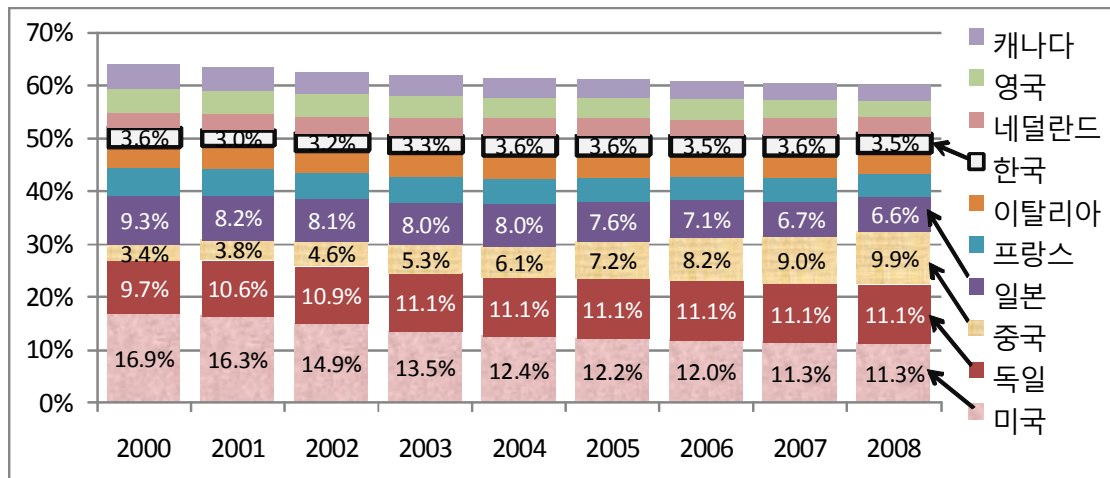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2010년은 미국과 EU가 1~10월, 일본은 1~11월 기준임.

【참고 1】 세계 부품소재 교역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추이

- UN BEC 통계를 통해 89개국⁴⁾ 부품소재⁵⁾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독일은 세계 부품소재 수입시장에서 약 11%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 9% 수준에서 2008년 6%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중국산 부품소재가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말 약 3% 미만에서 최근 10% 가까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미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6.9%에서 2008년 11%대로 급격하게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냄

< 주요국의 부품소재수출 / 세계(89개국 기준) 부품소재수입 비율 추이 >



자료: UN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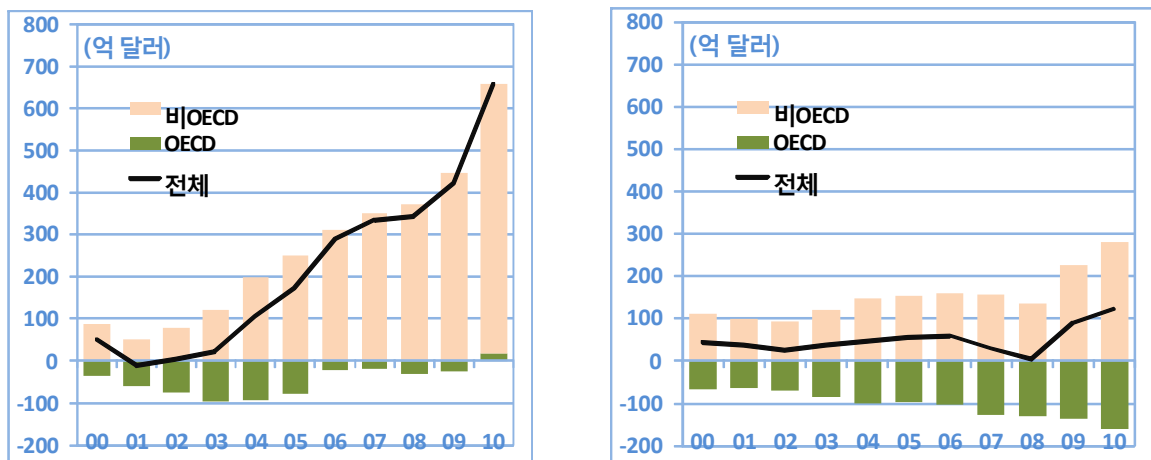
주: 부품소재 품목은 BEC 코드 21, 22, 42, 53이며, 세계시장은 총 89개국을 포함.

- 4) 2008년 기준 89개국의 수입규모 합계는 BEC 통계 전체 조사대상국 수입액의 약 92%,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 3 통계 전체 조사대상국 수입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5) 본 보고서에서는 UN COMTRADE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BEC(Board Economic Categories) 상의 중간재 분류 코드 중에서 21, 22, 42, 53을 부품소재로 간주함.

○ (소재 부문의 경쟁력 취약) 부품소재 산업 수출이 부품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재 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 소재/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2000년 35.4%에서 2010년 32.2%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이를 보면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은 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전세계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10년 779억 달러로 개선되고 있으나,
 - 이는 대부분 부품 부문 무역수지에 의한 것으로 소재 부문의 무역수지는 2010년 121억 달러로 부품 부문 무역수지 658억 달러와 격차가 존재함
-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부품 부문은 OECD는 물론 비OECD 국가에 대해서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재 부문의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냄
 - 소재 부문의 OECD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2000년 68억 달러에서 2010년 159억 달러로 확대되는 추세임

< 부품소재의 부문별 및 경제권별 무역수지 >
(부 품) (소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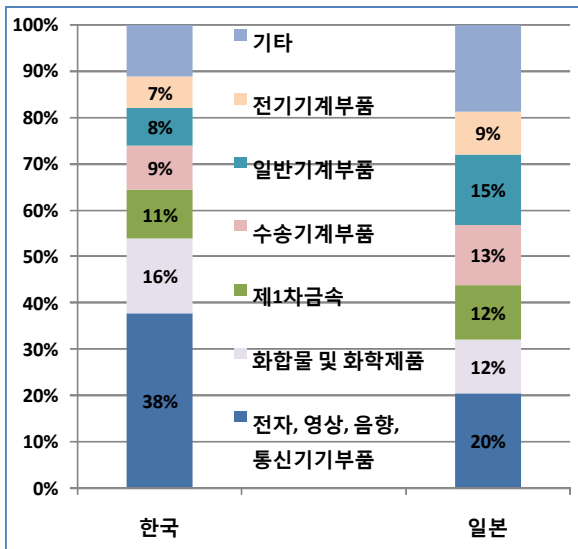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수출 집중) 부품소재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IT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품목별 수출 비중(품목별수출/총부품소재수출)을 보면 반도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한국의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수출이 총 부품소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이외에 화학, 금속, 수송기계 일반기계 부품소재 등이 상대적으로 고른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최근 10년 동안의 품목별 수출 비중 추이를 보면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음
 - 한국의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수출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10년 38%로 낮아지는 데 그쳤으나, 일본은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낮아짐

< 부품소재 품목별 수출 / 총부품소재 수출 비중 >

(한국과 일본의 2010년 기준 비교)



(한국의 2000, 2005, 2010년 추이)

품목	'00 (%)	'05 (%)	'10 (%)
섬유제품	8%	4%	2%
화합물·화학제품	14%	17%	16%
고무·플라스틱제품	3%	4%	3%
비금속광물	1%	1%	0%
제1차금속	9%	10%	11%
조립금속제품	1%	2%	2%
일반기계부품	5%	7%	8%
컴퓨터·사무기기부품	10%	5%	2%
전기기계부품	4%	5%	7%
전자·영상·음향·통신부품	41%	37%	38%
정밀기계부품	1%	1%	2%
수송기계부품	3%	8%	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일본의 2010년은 1~11월 기준.

○ (부품소재 강국과의 무역역조 심화)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품소재 산업 강국들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0년 24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됨
 -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은 2000년 81억 달러에서 13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수입은 198억달러에서 381억 달러로 증가함
- 한국의 독일에 대한 부품소재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같은 기간 3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늘어남
 - 한국의 독일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은 2000년 25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소재 총액은 27억달러에서 77억 달러로 증가함
- 이를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부품소재 경쟁력은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부품소재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한국의 독일 및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 추이 >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0	2005	2010
수 출	세 계	799	1,238	2,293
	독 일	25	38	41
	일 본	81	113	138
수 입	세 계	706	1,011	1,514
	독 일	27	56	77
	일 본	198	274	381
무역수지	세 계	93	227	779
	독 일	-3	-19	-35
	일 본	-117	-161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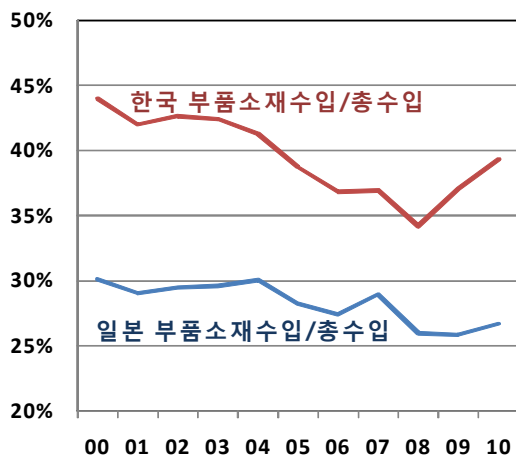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지식경제부.

【참고 2】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 부품소재 점유율 추이

- 한국의 부품소재수입액/총수입액 비중은 2008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빠른 상승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부품소재수입액/총수입액 비중은 2000년 약 44%에서 2008년 34%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0년 (1~11월) 현재 39%에 달함
 - 2010년 (1~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부품소재수입액/총수입액 비중은 39%로 일본의 27% 대비 약 12%p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 내 분석으로 국한하여 볼 때 품목별로는 부품 품목의 국산화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소재 품목의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 전체에서 부품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률은 2000년 32.8%에서 2007년 35.2%로 2.4%p가 증가함
 - 부문별로는 부품 품목이 같은 기간 30.1%에서 29.2%로 0.8%p가 감소한 반면, 소재 품목은 33.6%에서 37.9%로 4.2%p가 증가함

< 한·일의 부품소재수입/총수입 >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계산.

< 한국의 부품소재 품목 수입률 >

	수입률		
	2000	2007	2007-00
전품목	25.1%	24.1%	△1.0%p
제조품	25.1%	25.1%	0.0%p
부품소재	32.8%	35.2%	2.4%p
소재	33.6%	37.9%	4.2%p
부품	30.1%	29.2%	△0.8%p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수입률=수입중간재액/총중간재액.

4. 시사점

첫째, 부품소재 기술 수준별로는 하이테크 부문 위주의 선별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로테크 시장을 탈피해야 한다.

-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여전히 고기술 제품군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을 나타내주고 있음
- 한편, 최근 한국 부품소재의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⁶⁾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점은 당장은 부품소재 산업에 해외 수요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멀리 보면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수출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기계 기초부품 산업진흥 실시방안', 'Buy China'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 내에서도 개도국의 추적이 쉽지 않은 고기술 제품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둘째, 부품소재 산업별로는 부품소재 수출의 과도한 IT 집중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IT 이외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은 IT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IT 소수 품목(예를 들어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음
 - 2010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총 부품 수출의 약 30%, 액정 디바이스가

6) 부품소재 수출 중 對中 수출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10년 36.3%로 급증.

- 약 20% 정도로 두 품목이 부품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 품목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이 부품소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잘되는 분야보다는 자금 여력과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육성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지원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환경 및 에너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주요 후방 산업들에 대한 선별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셋째, 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방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생산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품소재에 대한 국내 수요도 확충해야 한다.

- 부품에 비해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 소재 부문의 경우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다만, 금융·세제 상의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통상 마찰의 소지를 만들기보다는 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결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넷째,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관련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전공 관

런 연구직으로의 취직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연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출입국 행정 편의 제공 등과 같은 해외 고급 연구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참고문헌】

김윤지(2006), "기계산업에서의 중진국 함정과 기술추격: 한국 기계산업의 사례", *기술혁신연구* 14(1).

김현정(2005),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17호.

Nelson, R.(1956), "A Theory of the Low-Level Equilibrium Trap in Underdeveloped Econom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6(No. 5).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New York.

Rodrik, D. (1996), "Coordination Failures and Government Policy: A Model with Applications to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0(1-2)

Rodríguez-Clare, A. (1996), "The Division of Labor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9(1)

【별 첨】 BEC의 용도별 산업 분류

용도별 명칭	BEC 품목 코드	BEC 품목 명칭
자본재	41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521	Transport equipment, industrial
중간재	111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industry
	121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industry
	21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primary
	22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processed
	31	Fuels and lubricants, primary
	322	Fuels and lubricants, processed (other than motor spirit)
	42	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53	Parts and accessories of transport equipment
소비재	112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122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522	Transport equipment, non-industrial
	61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durable
	62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semi-durable
	63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non-durable

자료: UN COMTRADE.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E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3	0.2	8.1	7.2	4.4	4.8	6.1	4.3	
	민간소비 (%)	1.3	0.2	6.3	3.7	3.3	3.2	4.1	3.8	
	건설투자 (%)	-2.8	4.4	2.3	-2.9	-2.3	-4.7	-2.3	1.5	
	설비투자 (%)	-1.0	-9.1	29.9	30.2	24.3	16.0	24.5	8.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32	328	3	89	99	92	282	197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33	426	30	145	114	128	417	304
		수출 (억 \$)	4,220	3,635	1,011	1,203	1,171	1,289	4,674	5,168
		증감률 (%)	(13.6)	(-13.9)	(35.8)	(33.1)	(23.6)	(24.0)	(28.6)	(10.8)
		수입 (억 \$)	4,353	3,231	981	1,057	1,507	1,161	4,257	4,864
		증감률 (%)	(22.0)	(-25.8)	(37.4)	(43.0)	(24.6)	(25.1)	(31.8)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7	2.6	2.9	3.6	2.9	3.0		
실업률 (%)	3.2	3.6	4.7	3.5	3.5	3.3	3.7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2	76	78	74	82	78	88.7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